

코스피	2455.91	코스닥	678.19
	(-48.76)		(-16.20)
금리 (미국 9년)	2.607	환율 (원·달러)	1396.50
	(-0.031)		(+0.90)



‘롯데월드타워’ 담보 건 롯데케미칼

유동성 우려 급한불 꺾지만 ‘땀질 처방’ 우려

올 3분기까지 6600억 영업손실
3년 연속 적자로 부채비율 75%
2조규모 회사채 EOD 사유 발생
롯데타워 담보로 위기설 대응에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필요 지적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케미칼이 최근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신용보강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당장의 문제는 불식시키겠지만 근본적인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 들어 3분기까지 6600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순손실은 681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에는 1조 53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이듬해부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48%에서 2022년 55%, 2023년 65%, 올해 3분기 7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1일 롯데케미칼이 발행시기가 미도래한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3개년 평균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 조항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이자비용 대비 EBITDA는 4.3배에 불과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회사



예산안 삭감 관련 기재부 긴급 소집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야당의 일방적인 내년도 예산 삭감안이 국민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가치는 현재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2조 45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롯데그룹은 “롯데타워 담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위기설을 불식시키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뿐 재무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파

른다. 석유화학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유독 롯데케미칼의 재무 부담이 커진 주 원인은 지난 2023년 3월 동북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2조 70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 당시 인수 과정에서 금융권 자금 1조 3000억원을 조달했다. 이 중 7000억원이 내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또 전해액 유기용매 생산 설비에 약 3500억원, 미국 양극박 공장 건설에 약 4억 500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지소재사업 매출액 목표치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로 인해 업황이 침체되면서 기대했던 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9% 감소하여 실적이 가파르게 추락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불 붙은 비트코인 11월에만 38% ↑ 선물 10만弗 돌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월에만 3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현물시장에서도 이달 중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일 7만달러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9만7000달러를 기록하면서 11월에만 38.5% 상승했다.

미국 대선일인 지난달 5일(6만7600달러)기준으로 보면 무려 43% 급등했고, 지난달 최저점(5일 장중 6만5000달러)과 최고점(23일 9만9655달러)의 상승률은 무려 53.3%에 달한다.

비트코인 폭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 공약한 친(親)가상화폐에 대한 행보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정부효율부’ 신설을 확정지었다.

트럼프 親가상화폐 행보 실현
SEC 규제완화 기대, 투자 열기 ↑
선물시장 10만 달러 돌파 기록
“연말 최대 12.5만 달러 가능성”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장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한 규제를 추진해온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화답하듯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달 10만달러 돌파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日 엔화 가치 급등... 물가상승에 금리인상 기대감

원·엔 환율 7일 연속 상승
주간기준 9월20일 이후 최고가

지난달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내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BOJ)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시장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8.81원(0.96%) 오른 100엔당 929.5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

다. 이는 7일 연속 상승으로, 주간 거래 기준 지난 9월 20일 이후 최고가다. 이날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도 상승을 이어갔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척도인 엔·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61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81엔(1.19%) 낮아진 수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 한 달 만이다.

앞서 엔화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100엔당 900원 전후에 머무르며 약세

를 지속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로 엔화 가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가 멀어졌다는 전망이다.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1월 18일 “금융완화의 추가 조정을 어떤 시기에 진행할지는 앞으로의 경제·물가·금융 등 상황에 달려 있다”며 “대회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 경제·물가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정책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메시지를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정책 선호)으로 받아들였고, 12월 금정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인 전망에 엔화는 지난 19일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다.

계속된 엔화 약세에 일각에서는 7월 이전의 ‘슈퍼 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엔화는 지난달 말 빠르게 강세 전환했다.

<4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코인과세 유예’ 野 동의 “국민 못 이긴다” /사진 뉴시스
▲ 국민의힘 “野, 재해대책 예비비도 들어내... 나라 끝장내기 예산삭감”

▲ 공공기관 46% 수도권에... 서울에 122개사 ‘집중’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 또 연기... 내년 하반기 이후로



▲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사진 뉴시스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후호 여부” 12일 대법원서 결정

서울책보고, 헌책 회수통보...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반발

위기의 공공헌책방

〈上〉 헌책판매 비중 대폭 줄여

서울책보고 방문객 5년새 1/2 줄여
서울시, 31일자로 헌책판매 종료

서울시가 지난 2019년 문을 연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에서 헌책 위탁판매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고, 입점 서점들에게 입고된 책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입점 서점들은 헌책방 운영부진을 타개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공공적 기능만 대폭 줄이는 이번 결정은 전임시장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지우려는 의도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31일자로 서울책보고에서 헌책 판매를 종료키로 하고, 최근 공공헌책방에 입점한 헌책 판매 서점들에게 맡긴 책들을 전부 가져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는 운영 부진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33개 헌책 판매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에 ‘핫플레이스’로 잘 나가던 서울책보고를 못마땅하게 여겨 문을 닫으려는 것이라며 책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책보고 방문객수는 2019년 31만명에서 작년 10만 5000명으로 약 3분의 1가량 줄었다. 같



지난달 29일 시민들이 서울시의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에서 책을 읽고 있다.

/김현정 기자

입점 서점 “실적 부진, 서울시 탓
독자 행사·홍보 등 찾아볼수 없어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황당하다”

은 기간 헌책 판매 실적은 21만권에서 4만2000권으로 80% 급감했다.

입점 서점들은 서울책보고의 운영 및 헌책 판매 실적이 부진한 건 전적으로 서울시 탓이라고 한 입으로 성토했다.

서울책보고 참여 서점 중 하나인 ‘공씨책방’의 사장 장화민 씨는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 때까지만 해도 헌책방 하고 독자를 연결해주는 행사가 많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런 게 사라졌다”며 “요즘에는 헌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서울시가 ‘오세훈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밀고 있는 ‘서울 야외도서관’을 알리는 홍보물이 서울시 내버스 음성 안내, 지하철 내 포스터, 시 소유 전광판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게, 서울책보고 홍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헌책방 홍보는 서울책보고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며 “야외도서관이 시민한테 호응 받다 보니 책보고는 홍보 순위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장 씨는 “시장 바뀌자마자 헌책방 살린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이건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전 시장 치적 지우기면

시 관계자 “홈피서 헌책방 홍보 중
치적 지우기 였으면 책보고 없었을 것
서점 대표와 운영개선 논의할 것”

서울책보고를 없앴을 거다. 그런데 책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단지 헌책 판매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고 답했다.

입점 서점들은 판매 매출이 하락한 건 서울책보고에서 책 입고 작업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책방이 책을 주면 입고시켜 줘야 손님들이 보고 찾아가는 데 입고가 안 됐다”며 “지난 몇 달간 10권 정도 밖에 입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점 서점들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 개선안에 대한 논의 한 번 없이 당장 보관할 곳도 없는 수천권의 책

들을 도로 가져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 씨는 “우리한테 미리 고지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시가 비엠컴퍼니(서울책보고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랑 이야기해 일방적으로 책방에 통지만 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책보고에 약 6000권의 책을 맡긴 ‘숨어있는 책’ 대표 노동환 씨는 “매출이 부진하고 이용자 반응이 안 좋다”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황당하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의논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A 씨는 “박원순 시장일 때 서울시가 거의 우리한테 읍소하다시피 해서 서울책보고에 참여한다고 했다. 처음엔 시장 바뀌면 공공헌책방 없어진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헌책방 사장들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시에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서울시가 하는 사업인데 시장 바뀐다고 사라지겠냐’고 설득해서 무리해 책을 사들여 갖다 놓았다. 그런데 이제 와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게 어딴냐. 몰염치하고 몰상식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의사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거다”며 “추후 헌책방 대표들과 운영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2030년까지 기초화학 매출 30%로 낮추기로

〉〉 1면 ‘롯데월드타워 담보...’서 계속

롯데케미칼은 각종 합성 수지 제조 원료가 되는 기초유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해당 시장이 중국발 공급 과잉에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

된 점도 문제이다.

롯데케미칼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60%대인 기초화학 사업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낮추고 첨단소재, 정밀화학, 전지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여수공장 등 기초화학 제품을 만들었던 주요 생산 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등을 포함한 원가 절감 프로젝트에 집중할 전략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등 롯데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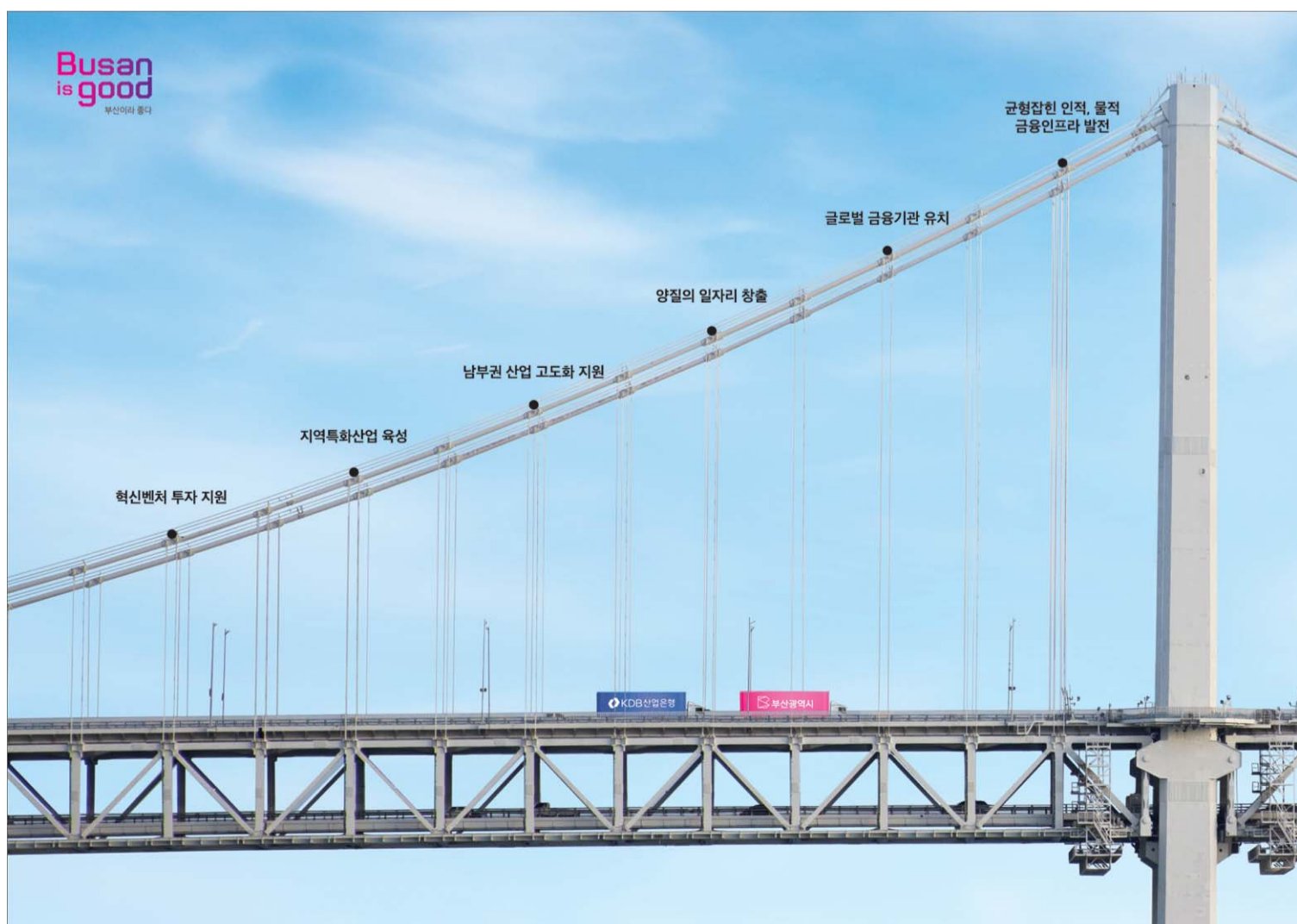
군 계열사 임원 30%를 감축하는 등 실적 악화에 대응해 인사교체도 단행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를 맡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롯데케미칼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자까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명확한 탈출구가 없는 상황

서 추가 차입을 통해 신사업을 모색하더라도 이는 결국 ‘차입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11월 18일 일부에서 제기한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까지 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부산동행

대한민국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인적·물적자원 집중과 지역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외형성장 ‘투 트랙’... 국내 10호 종투사 도전

CEO 리서치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오 대표는 리스크 관리와 외형 성장에 집중하면서 회사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한편 이번에는 종투사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대신증권의 40년 산증인... 탁월한 리스크관리

1987년 대신증권에 입사한 오익근 대표는 4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은 ‘원조 대신맨’이다. 인사부장, 재무관리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을 거쳐 대신저축은행 대표와 대신증권 부사장을 역임한 뒤 2020년 3월 대신증권 대표에 올랐다. 회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타격을 입어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대표로 취임한 그는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데 집중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사적화해를 통해 피해 수습에 나섰다. 이후 그는 2021년 8월, 금융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80% 배상안을 수용하며 분쟁조정 최대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40년 ‘원조 대신맨’... 신뢰 중시 라임사태 당시 최대수준 배상 결정 금융 상품 내부통제·사후관리 강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등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조직을 바꾸었다. 오 대표는 2020년 6월 말 금융 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상품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금융상품을 점검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객패널과 고객만족도조사, 고객의 소리(VOC)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민원 처리와 구제 절차,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대신민원관리시스템’도 도입했다.

◆ 고금리, 부동산 PF 위기 속 빛난 대신증권 실적

최근 리스크관리와 함께 리테일 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오 대표의 리더십은 단연 돋보였다.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부실 등으로 대부분의 중소형 증권사가 실적 부진을 겪은 데 반해 대신증권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6856억원, 당기순이익 6881억원을 달성, 전년 대비 각각 671.2%, 695.5% 증가했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서도 리테일과 투자은행(IB), 트레이딩 부문의 사업 등을 강화한 경영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대신증권은 지난해 계열사 배당 및 보유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기자본을 꾸준히 확충하며 성장잠재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고객 친화적인 정책과 시장 환경에 맞춘 금융상품 판매 전략으로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7일 이내 신용융자 이자율 0%’ 정책을 통해 브로커리지 고객 유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채권 판매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 전략도 주효했다. 대신증권은 시장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채권 판매에 나서며 지난해 9조 원의 채권을 판매했다. 이 같은 채권 판매 등 리테일 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고객 총자산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대신증권은 우발채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PF 등에 대응했다. 부동산PF 부실의 문제로 떠오른 ‘브릿지론’은 전체 PF 규모의 10%에 불과했다.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는 고객

과 회사 모두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서비스 출시 직전 도입을 철회했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추가연계증권(ELS)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 발행액 기준 전체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지난해 CFD, ELS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리테일 호조... 고객 총자산 100조 종투사 지정요건 자기자본 3조 충족 리츠 상장 등 사업 다각화 적극 추진

◆ 새로운 도약 준비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종투사와 비종투사 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신증권도 올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1129억원, 10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25.4% 감소했다.

이에 대신증권은 최근 종투사 도전에 다시 나서며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이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신용공여 한도

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헤지펀드에 자금 대출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외화 일반 환전 업무도 가능해진다.

종투사들이 꾸준한 자본금 확충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 대표 역시 종투사 신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자기자본 2300억원을 확보해 종투사 지정 요건 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한 바 있다. 앞서 추진하던 본사 사옥 매각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단한 대신 이 건물을 기초로 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을 추진 하는 등 자본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대신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 10번째 종투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를 넘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프로필

1963년 출생
1988년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1987년 대신증권입사
1999년 대신증권 마케팅부장
2003년 대신증권 인사부장
2007년 대신증권 재무관리부장
2009년 대신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2011년 대신저축은행 상무이사
2013년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2019년 대신증권 부사장·경영지원총괄 겸 IB사업단장
2020년 3월 대신증권 대표이사(現)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꼭 필요합니다

안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은
고준위 방폐장에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특별법 제정이 시작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고준위 방폐장 개념도

신사업·글로벌 확장... 유통가 '젊은 리더', 미래 이끈다

오너 3·4세 세대교체 본격화

롯데, 해외 사업으로 미래성장 모색 GS그룹,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초점 농심, 미래사업실 통해 M&A 주도 삼양식품, HMR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오리온, 인수합병으로 신사업 가속

유통·식품업계가 세대교체에 속도를 내면서 오너 3·4세의 경영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진행한 최근 임원 인사에서 오너 3·4세대들이 고 속 승진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선 것.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트렌트에 발빠르게 대응해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최근 임원 인사에서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신유열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말 '2023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했으며, 이후 1년만에 전무로 승진했다. 전무 승진과 함께 롯데지주 미래성장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에서 근무하며 그룹 내 미래사업 및 글로벌사업 부문을 주도했다.

롯데그룹은 신 부사장이 사장단에 합류함으로써 신사업 분야와 글로벌시장 개척을 통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신유열 롯데그룹 미래성장실장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전무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



담서원 오리온 경영관리담당 상무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CDMO 등 신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핵심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힘을 계획이다.

GS그룹은 GS오너가 4세인 허서홍 GS리테일 경영전략SU장(Service Unit 장,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지난달 27일 단행했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부회장이 2015년 대표에 오른 지 9년 만에 대표 교체가 이뤄졌다. 업계는 GS리테일 부문에서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다.

허연수 부회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GS리테일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후임으로 허서홍 SU장이 대표이사직을 맡는다"고 말했다.

허서홍 신임 대표는 작년 12월 1일자 인사를 통해 GS리테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도 채 안 돼 대표로 초고속 승진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장남으로, 허태수 GS회장의 5촌 조카다. 서울대 서양사학을 전공했으며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2년 GS에너지에 입사했다. 이후 2020년 GS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2022년 GS미래사업팀장 전무를 거쳤다.

허 대표는 GS리테일의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열한 편의점 경쟁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현재 GS25와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매출 격차가 100억원대로 근소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식품업계도 3세 경영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심은 2025년 정기인사에서 신동원 농심 회장 장남 신상열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2021년 말 구매담당 상무로 승진한 지 3년 만이다. 신 전무는 올해 초부터 미래사업실장을 맡고 있으며, 회사는 미래사업실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경영기획실 산하 성장전략팀과 N스타팀을 통합해 미래사업실을 신설했다. 미래사업실은 인수합병과 신사업,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한다.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상무)과 담서원 오리온그룹 경영관리담당(상무)도 그룹 내 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 상무는 올해 신설된 헬스케어BU장을 맡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담상무는 오리온그룹의 중장기적 사업전략 수립과 신사업 발굴을 담당한다. 오리온은 담 상무의 주도하에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2022년 그룹 지주 산하에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고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한 유통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리더들을 경영 전선에 앞세우고 있다"며 "유통가 3·4세대들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내에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그룹 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바이오 '글로벌 점령'... 3분기 수출 신기록 달성

의약품·화장품 등 전년비 22.5% ↑ 전체 의약품 수출서 바이오 61% 차지

한국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다. 기초화장품 수출액 역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한 63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성장폭

이 컸다. 지난3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7% 급증한 14억6000만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규모는 61.3%에 달한다.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한 23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31.2% 증가한 26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반기 최고 기록

을 쓴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도 최고 실적 행진이 이어지며 2024년 한해 보건산업 수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분기 의료기기 수출은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증가와 함께 1.8% 늘어난 13억7000만 달러를 기록,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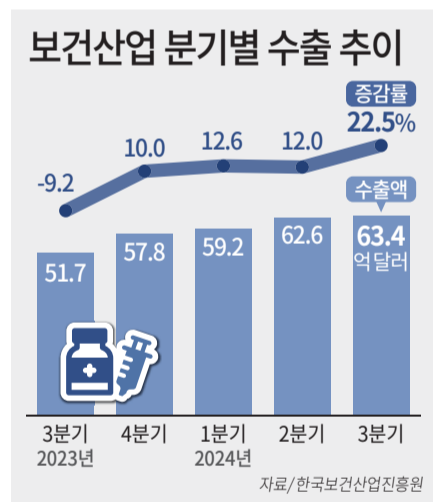
화장품 역시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인체세정용 제품류'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 3분기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2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19억5000만 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 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며 "4분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



장용 제품류 등 주력 품목의 수요지속으로 보건산업 수출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세길 기자 seille@

의료계 참여 중단... 여야의정협의체 파행

의료계 "정부·여당 해결 의지 없어"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에 이르렀다.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문제 등을 두고 각 주체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후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

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는 유감"이라며 "추후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의정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 기구로, 지난달 11일 출범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1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박찬대 "추가적 제도 준비 필요한 때"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 입장을 펴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준비가 필요한 때"라며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정부·여당의 주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초와 달리 가상자산 2년 유예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랜 숙의와 토론을 하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13개이고, 의원 발의 법안 중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이 22개다. 총 35개를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그중 우리가 쟁점 없는 부분들은 가결할 것이고, 쟁점이 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결할 부분은 부결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1면 '일 엔화 가치 급등... '서 계속

도쿄 물가 2% 넘었다

지난 11월 29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도쿄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1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전월 대비 0.4%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측치인 2.1%를 웃돌았다.

앞서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로 제시했던 2.0%도 넘겼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오는 19일 개최되는 12월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상 폭으로는 25bp(1bp=0.01%p)가 유력하다. 일본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는 연 0.25%다.

아울러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시장 기대감에 확신을 주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리그를 넘어, 세계 클럽 월드컵으로

- 2025 FIFA 클럽 월드컵 진출 -

울산 HD FC가 3년 연속
K리그1 정상에 섰습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그라운드를 채워준
축구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울산 HD FC는
세계 무대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원동력 삼아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울산 HD FC 2024 K리그1 우승
2025 FIFA 클럽 월드컵 진출




하나은행 | K LEAGUE 1 2024

CHAMPIONS

2024



예결위, 감액 예산안 673.3兆 처리

與 “사과·철회 강력 촉구” vs 野 “합의 불발 등 부득이 상정”

與 “예산 심사권, 정쟁 도구 삼아 정당 겁박하는 예산 폭거·의회 폭력”
野 “與 ‘방탄예산’ 주장 터무니 없어 尹, 예비비 4.8兆… 사업예산은 삭감”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태호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뉴시스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국이 급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1월29일 여야 합의 없이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주로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증·감액 이견이 큰 예산이 감액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덜어낸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별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거대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증액을 추진하던 지역화폐 예산 2조원까지 포

기하면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與 “먼저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

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꿈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

했다.
◆野 “방탄 예산 주장은 터무니 없어… 부득이 상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 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

감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권력기관이 특활비 등의 삭감에 반발하는 것에 “검찰이 특활비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허 간사는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수사비용이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있다. 그 돈을 집행하면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 돈을 다 집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라”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 여야에 만찬 제안…與 거부

한편, 우원식 의장은 얼어붙은 정국을 중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현안을 논의한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의 전에 시간이 남아있으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로 다수당의 힘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당분간 민생행보 집중하며 인적쇄신 준비

금주尹 주재 민생토론회 열려
與野, 예산안 두고 대치 심화에
인사개각 연초로 지연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의 대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 개각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린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다. 정부는 앞서 7월과 10월에 총 36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원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라고 지

시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사항 해결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소상공인 지원책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첫 정책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청년

과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 같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살펴볼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각과 참모진 개편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이후 인사 발표를 염두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졌다.

이날도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

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못박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각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을 단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개각 시점이 연내가 아니라 연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21일에 처리됐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구·경북서 외연확장 시도… 지역화폐 필요성 설명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며 TK 일정 소화
경주 APEC 예산 증액 관련 논의도

11월 두 번의 재판 1심 선고를 받고 당분간 사법리스크 논란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TK(대구·경북)를 1박2일 일정으로 찾으며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경상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것을 시작

으로 본격적인 TK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TK 지역에 머물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119 구급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행보도 펼친다. 이 대표는 2일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로 복귀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철우 지사에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경북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

자 이 대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은 대구하고 통합해 장기적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저의) 대선 때 공약도 그렇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 강화도 해야 한다. 어쨌든 집중화를 막는다. 지방 안에서도 집중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법 중 소단위 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중 하나가 그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도 어느 정도 지역인지 중요하다”며 “경북 영양군에 1만5000명이 사는데, 지역화폐를 돌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곳이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 월에 15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정책을 했는데, 그 동네에 미장원이 생겨서 동네사람들이 미용도 하러가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

사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증액에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제가 챙겨보겠다”며 증액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할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의 퇴직연금을 옮겼다 노후에 확신이 생겼다

퇴직연금을 바꾸면
노후생활이 바뀌니까

그래서 당신의 퇴직연금은
KB국민은행이어야 합니다.

더 든든한 노후생활
KB국민은행과 함께 준비하세요.

KB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
KB스타연금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제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운용센터 (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773호(2024-11-20 ~ 2025-10-31)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2024-5481호(2024.11.20), 광고물 유효기간 2024.11.20.~2025.10.31까지

 KB 국민은행

저축은행 톱5, 3분기 누적순익 1551억... 업황 반등 신호탄

기준금리 인하로 회복 가속
상위 5곳 실적 8.9% 증가
지방권 업황 개선은 과제
PF 활성화·소매금융 기대

올 3분기 저축은행의 업황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실채권(NPL)을 털어내면서 대손충당금을 줄인 영향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업황 회복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상위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애뉴온저축은행)의 누적순이익은 1551억원이다. 전년 동기(1424억원) 대비 8.9%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9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었다. 상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업황이 회복되는 모양새다.

실적이 가장 많이 호전된 곳은 애뉴온저축은행이다. 9월까지 누적이익 3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누적순손실(-375억원)과 비교하면 만족할 성적표다. 3분기 순이익은 199억원이다. 지난 1분기를 시작으로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애뉴온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63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등 대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이익은 279억원이다. 전년 동기(114억



저축은행이 3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업황 회복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관측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원) 대비 144.7%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98.7% 증가한 165억원을 달성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몸집을 줄이는 추세지만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영향이다. 9월말 기준 한국투자저축의 총여신잔액은 7조1551억원으로 연간 1649억원 증가했다.

3분기는 업계 전반에 걸쳐 호실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국 저축은행권의 합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면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합산순이익은 258억원이다. 물론 상반기 실적과 합치면 여전히 누적손실 3636억원이다. 지난 1~2분기 389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영향이다.

적자가 여전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무적이란 평가다. 당초 저축은행의 반

등 시기를 두고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직전 분기 대비 1.11%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채권 매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여신잔액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점이란 평가다. 지난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잔액은 97조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원 줄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자산관리에 집중하고 영업을 축소하는 등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다했다”며 “업황 회복흐름이 포착됐지만 전반적인 영업개황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건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지방저축은행의 실적 반등이 요구된다. 아직 수도권·대형 저축은행을 중심

으로 업황 회복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지주계열저축은행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분기까지 BNK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의 누적순이익은 각각 42억원, 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지켜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업 환경이 나쁜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지방 저축은행의 업황 회복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다. 향후 추가 인하 조치가 있다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리테일(소매금융) 영업 여건도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황 회복 과정에서 본격적인 ‘육성카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을 통해 PF 사업을 무리하게 단행한 저축은행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리한 후순위채 발행을 병행한 저축은행은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단 우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세한 만큼 업황 반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한 황해수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상주(오른쪽 첫번째)가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자금세탁방지 우수 금융위원장 표창

KB국민카드가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KB국민카드는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한 이해와 인식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수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한다.

KB국민카드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교육 ▲고위험 국가 고객확인 확인 ▲주거적 고객위험평가 수행 등 자금세탁방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취임 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고객확인 의무 제도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잖은 공을 들였던 설명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부분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쏘트래블 체크카드 150만장 돌파 이벤트

신한카드가 오는 31일까지 신한 쏘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150만장 돌파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추첨 대상은 쏘트래블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리모와 캐리어 ▲에어팟 맥스 ▲고프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미니언즈 여권케이스&네임택 등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최대 150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같은 기간 응모와 관계없이, CU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 15종을 1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한 쏘트래블 체크카드’ 실물 결제 및 포켓CU앱 QR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일 “6개월 만에 100만장 누적 발급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 말 150만장을 돌파했다. ‘국내외 어디서든 365일 쓸 수 있는 카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최초 도시철도 본격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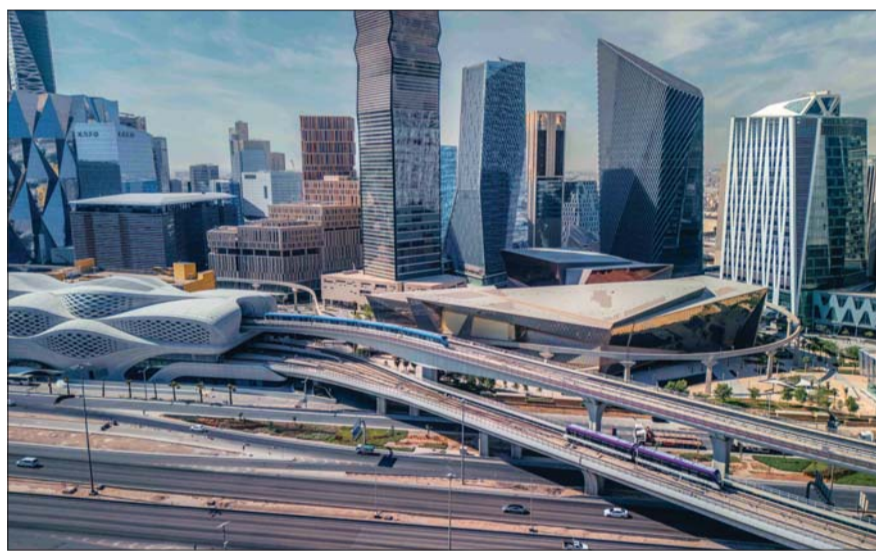
리아드 첫번째 대중교통 시설
6개 노선 중 3개 노선 정상운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메트로가 본격 개통돼 현지시간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리아드 메트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아드에 들어서는 첫번째 대중교통 시설이며, 1호선부터 6호선 총 176km 연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6개 노선 중에서 1·4·6호선 3개 노선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된다. 2·5호선은 오는 15일, 내년 1월 5일에 3호선까지 단계적으로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6개 전체 노선에 대한 개통식이 진행됐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직접 리아드 메트로의



리아드 메트로 열차 운행 전경. /삼성물산

개통을 선언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리아드 메트로 노선 중 삼성물산은 스페인 건설사 FCC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4-5-6호선을 시공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킹 압둘라 금융지구 등 리아드 핵심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노선들은 총 연장 70km에 달하며, 역사만 29개, 24km의 교량구간 등이 함께 건설됐다.

리아드 메트로에는 사우디아라비아비

전 2030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리아드 핵심 대중교통 시설로서 사우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동남아·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인프라·발전소와 같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영훈 삼성물산 리아드 메트로 부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첫 도시철도 프로젝트를 직접 시공해 의미가 크다”며 “공사기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이 보유한 높은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리아드 메트로를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민은행, 코어뱅킹 현대화 본격화

안정적 거래·디지털 혁신 실현
IBM과 메인프레임 계약 갱신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코어뱅킹 현대화를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코어뱅킹은 은행 시스템 운영의 중심축으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며

대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코어뱅킹 현대화를 위해 KB국민은행은 대량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존 메인프레임 기반의 코어뱅킹1과, 신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최적화된 코어뱅킹2로 이원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안정

적인 금융거래와 디지털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다.

이원화 전략에 따라 메인프레임 기반 코어뱅킹1은 2030년까지 완전 전환한다. 코어뱅킹2는 타 업무와 연계성이 낮은 업무부터 시작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 핵심 기능까지 클라우드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화 과정에서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IBM과 2025년 7월 만료 예정

인 메인프레임 계약을 2030년까지 갱신한다. 2025년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메인프레임 환경을 도입해 신기술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의 급증과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어뱅킹 현대화는 필수적”이라며 “안정적인 대고객 서비스와 디지털 혁신을 동시에 실현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배터리업계, 자원 공급망 넓힌다 국내 수급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리튬 등 저평가 자산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통해 돌파구 모색
“제조비용 줄이고 외부환경 대응”

배터리 업계가 업황 부진 속에서 생산능력 확대보다 생존을 위한 제조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사들이 캐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원 공급망을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튬, 니켈 등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시기에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확대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구매 원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 수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기준 탄산리튬 가격은 1kg당 75위안(약 1만4449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10월말(1kg당

69.5위안)보다 약 8% 상승했다. 가격 반등 요인으로는 지난 9월 중국 CATL이 연산 20만톤의 리튬 공장을 문을 뿜준 것이 꼽힌다. 호주 리튬 업체들도 감산, 생산 지연 등 공급 조절에 나서며 등 가격방어에 돌입한 점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리튬이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수급 차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리튬은 호주·칠레·중국 등 3개국이 전체 생산의 약 90%를 점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게 리튬 공급망 안정화는 곧 비용 절감의 핵심 방안으로 여겨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 광물자원 중 리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호주 리튬 광산 업체 라이온타운과 리튬 정광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리튬 정광 70만톤을 공급받게 됐다. 특히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

산화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리튬 정광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SK온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화리튬을 확보하며 배터리 핵심 원소재 수급 다변화에 나선다. SK온은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과 수산화리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1만 5000톤을 공급받는다.

삼성SDI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2056억원의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해 배터리 소재 내재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자회사인 에스티엠(STM)을 통해 직접 양극재로 가공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품질관리와 원가 절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포스코그룹이 지난달 29일 전남 울촌산업단지에서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스티브 스쿠다모어 필바리튬솔루션 사외이사,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향엽 국회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리튬 국산화 박차... 年 4.3만t 생산

광양 울촌산업지 제2공장 준공
장인화 회장 “글로벌 톱 리튬사 성장”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연산 4만3000톤 생산체제를 완성했다. 연간 전기차 약 100만대 분량에 들어갈 핵심광물 수산화리튬의 국산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은 지난달 29일 전남 광양시 울촌산업단지에 광석 기반 수

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연산 2만1500톤 규모의 제1공장을 준공한 뒤, 1년 만에 제2공장을 완성하며 총 연산 4만3000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 제1공장은 독자 개발한 전기투석 원리의 리튬 추출기술을, 제2공장에는 호주·중국 등 해외기업이 운영 중인 상용 기술을 각각 적용했다.

회사 측은 이곳에서 생산한 수산화리

튬을 포스코퓨처엠에 연간 최대 3만톤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2일 SK온과 향후 3년간 최대 1만5000톤을 공급하는 장기계약도 체결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규제환경 변동 속 이차전지소재 핵심광물인 리튬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철강에 이어 이차전지소재 분야에서도 소재보국의 길을 열었다”며 “추후 글로벌 톱 리튬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아파트멘터리, 공간솔루션 사업화 맞손

AI홈 기반 가전-인테리어 결합

LG전자가 인테리어 전문 스타트업 ‘아파트멘터리’와 손잡고 ‘AI홈’의 확대와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달 29일 아파트멘터리와 ‘공간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류재철 LG전자 HCS사업본부장 사장, 이향은 HSCX담당 사무와 윤소연·김준영 아파트멘터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LG전자의 AI홈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전과 인테리어를 결합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솔루션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협력한다.

이와 함께 양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가전을 선택하는 시점을 설계 초기 단계로 앞당겨, AI가전과 인테리어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누구나 BMW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고객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 탈바꿈

Q 르포

BMW 드라이빙 센터

‘리테일 넥스트’ 콘셉트 반영
내부 벽 최소화... 휴식공간 확대

“BMW 드라이빙센터는 방문해 여유롭고 편안하게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BMW코리아가 인천 영종도에 자리하고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를 고객 친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전 전시장과 차별화된 부분은 고객들이 이동 중 쉴 수 있는 좌석 공간을 곳곳에 배치했으며 내부 벽을 최소화해 이동성과 개방감을 확대했다.

28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는 BMW 그룹 내 독일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 최초의 드라이빙 센터이자 전 세계 유일의 트랙 및 고객 체험 시설이 한곳에 자리한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이다. 770억원을 투자해 2014년 7월 문을 열었으며, 2019년에 추가 확장에 130억원, 이번 리뉴얼에 48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950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규모는 축구장 40개 면적에 버금가는 총 29만1802㎡에 이른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자동차 전시 공간 외에도 드라이빙 트랙과 어린이 과학 창의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 친환경 체육공원 등을 두루 갖췄다.

이번에 리뉴얼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BMW 그룹의 차세대 전시 공간 콘셉트인 ‘리테일 넥스트’가 반영돼 고객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하나의 동선으로 모든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던 벽체를 허물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실리스’ 개념이 적용돼 관람객은 하나의 간결한 동선으로 BMW와 MINI, BMW 모터라드의 최신 차량과 브랜드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차량을 도열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 동선을 따라 모델을 배치하고 휴게 및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이 자연스럽게 센터 내 모든 브랜드 및 서비스 체험 시설을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정면에 웰컴 디스플레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오른쪽에는 MINI(미니)존이 자리하고 있다. 미니의 양증맞으면서도 톡톡 튀는 개성을 담은 디자인과 조명, 그리고 미니의 아이덴티티인 동그란 헤드라이트



BMW 드라이빙 센터 BMW M존.



BMW 드라이빙 센터 MINI 전시 존.

의 형상을 담은 미러로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전시실 한편에는 미니의 히스토리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했다.

건물 한편에는 BMW의 1~6시리즈 모델이 전시돼 있다.

입구 왼쪽으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는 BMW의 1~6시리즈 모델들이 전시돼 있다. 차량을 도열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천장에 표시된 관람객의 워크웨이를 따라 자유롭게 차량을 배치했다.

7시리즈 이상은 BMW 럭셔리 클래스 라운지에 전시돼 있다. 한국 전통의 색상과 문양, 장식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꾸며 색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 옆에는 BMW 고성능 브랜드 M존이 있어 BMW의 고성능 차량도 감상할 수 있다. BMW는 이곳을 드라이빙 체험 라운지를 가는 동선 직전에 위치시켜 드라이빙 체험을 하러 온 고객들이 M존에서 감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꾸민 ‘모토라드 존’, 품목을 이전 대비 15% 늘려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라이프스타일 존’, 브랜드 철학을 깊게 만날 수 있는 ‘헤리티지 존’, 미래 비전과 기술 콘셉트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전 포럼’ 등이 자리 잡았다.

BMW 그룹은 “지난 10년간 모든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전달하며 유쾌한 자동차 문화를 전파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하게 쉬면서 차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AI 구독클럽’ 서비스 개시

TV, 냉장고 등 가격 부담없이 사용

삼성전자는 ‘AI구독클럽’ 서비스를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을 통해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AI 구독클럽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품 구매 시 초기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구독서비스대상 모델은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이며 이 가운데 90% 이상은 AI(인공지능) 제품으로 구성했다.

고객들이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세분화 하였으며 무상 수리, 케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월 1000대 판매... 전자사전, 학습·단순함 '틈새시장' 공략

디지털 피로 시대, 소비자 주목
기속학교 필수템으로 부활해 인기
중고 제품 8~20만원대 가격 형성
온라인 학원 사이트전 직접 판매도

스마트폰 시대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전자사전이 여전히 틈새 시장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중·고등학생들의 필수 학습 도구였던 전자사전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사양길에 접어드는 듯 보였으나, 특정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1일 국내 유일의 전자사전 정식 유통 업체에 따르면, 전자사전은 매달 100대 이상 꾸준히 팔리며, 성수기인 방학 시즌에는 월 1000대까지 판매량이 급증한다.

현재 국내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사전은 대만 브랜드 '베스타'가 유일하며 아이리버 등 타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단종돼 중고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고 전자사전은 8만원부터 2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전자사전의 주요 구매층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와 기속학교 학생, 만학도 등이다. 특히, 기속형 학교에서는 휴대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Y2K 트렌드의 영향으로 전자사전을 학습 도구로 구매했지만, 스마트폰의 유혹에 방해받는 학생의 모습'.

폰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가 많아 전자사전이 매우 유용한 학습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학습자들도 종이사전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운 전자사전을 더 선호한다. 버튼 몇 번으로 단어를 쉽게 검색하고 발음까지 확인할

수 있어 주요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사전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함'에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과 알림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과 달리, 전자사전은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 학부모는 "전자사전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어 게임이나 다른 메신저 앱으로 주위가 흐트러지지 않아 훨씬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기속학교 입학설명회나 학원 강사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을 추천하기도 한다. 심지어 실제 한 온라인 학원 사이트에선 수강생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Y2K(2000년대) 트렌드의 부상과 함께 아날로그 감성을 선호해 전자사전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중고 기기를 판매하는 상인 최모 씨는 "전자사전을 찾는 고객 중엔 학습용뿐만 아니라 '옛날 느낌'을 좋아해서 구매하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자사전이 과거처럼 부활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수요층을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전자사전에 이에 적합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중소 대표상품 총집결"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동행축제 기간 동안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방송 상품을 앱으로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배송완료 후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주말에는 '동행축제 행복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기간 매주 토요일에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다. 쿠폰은 ID 당 하루에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3만원 이상 방송 상품 구매 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 포함 7일이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온기를 나누기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4일부터 18일까지 '기부엔데이' 이벤트를 통해 공영홈쇼핑 앱에 '희망 메시지'를 남기면 2천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수출 14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철강 강세

산업부, 지난달 수출 전년비 1.4% ↑
고부가 전환, 반도체 수출 30%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과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적차질 등으로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도 1년 전보다 3.6%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로써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 플러스는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가 견인했다. 지난 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0.8% 증가한 125억달러로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출이 매 분기 증가하면서 1~11월 누적 기준 127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우리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인 HBM과 DDR5 등으로 신속 전환하는 가운데, AI 서버와 기업용 SSD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메모리 수출을 중심으

로 증가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14억달러(+19.6%)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철강 수출은 1.3% 증가한 27억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1년 전보다 70.8%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6억 달러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11월 초 파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지연 영향으로 완성차업체로의 부품공급차질이 발생하며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석유제품(37억달러, -18.7%)·석유화학(36억달러, -5.6%) 수출도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월말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선적 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최대 수출지역인 대중국 수출은 113억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보험세를 보였다. 대미국 수출은 104억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98.2억달러, +0.4%)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시몬스의 블랙포레스트 구스 듀얼 서포트 토퍼.

시몬스

"구스 다운의 따뜻함"

프리미엄 침구 라인업

시몬스가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포근한 숙면을 선사할 수 있는 '연말 선물 아이템'을 제안한다.

1일 시몬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수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수면 제품들이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엄선한 프리미엄 소재와 탁월한 기술력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선사하며 연말 선물로 제격인 다채로운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구스 레어 듀얼 라이트'는 추운 겨울과 혹독한 해풍 등을 견뎌낸 헝가리산 구스 다운이 90% 이상 함유돼 안락함과 포근함을 선사한다. 또한, 실내 온도와 습도에 반응하며 열이 많은 사람도 답답함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연말 특가전 돌입!... 최대 270만원 할인 쏟아진다

완성차 업계,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
무이자 할부·현금 지원 혜택 강화

국내 자동차 시장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12월을 맞이하고 있다. 한해의 마지막 한달을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차 그랑 폴레오스 출시로 끝까지 탈출에 성공한 르노코리아는 상승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르노코리아는 12월 쿠팡형 SUV 아르카나 구매시 최대 170만원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르카나 기술린



쉐보레 올 뉴 콜로라도.

모델과 E-Tech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의 경우 일반 할부 및 잔가 보장 '스마트'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100만

원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말 조기 출고 혜택 최대 30만원, 각 판매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과 재구매 1회 기준 20만원 혜택까지 적용하면 최대 17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스테디셀러 중형 SUV QM6는 25만 대 누적 판매를 기념해 2025년형 SP 모델에 100만원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스마트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특별 혜택 규모를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최대 2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6 인스파이어 트립 구매 고객에게는 250만원의 특별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양성문 기자 ysw@

/양성문 기자 ysw@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

MOBILE WORLD CONGRESSES BARCELONA 2025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박람회
최신 모바일 기술, 혁신 및 산업 동향, 5G, 인공지능(AI),
IoT, 디지털 헬스케어, 최신 제품 전시 및 발표, 글로벌 네트워크

개최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Spain Barcelona Fira Gran Via]

개최 일자 : 2025년 3월 3일 (월) ~ 3월 6일 (목)



국제 방위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5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2025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방위 산업 & 정부 & 군대 및 군인 최신 방위 기술 및 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장소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ADNEC)]

개최 일자 : 2025년 2월 17일 (월) ~ 2월 21일 (금)



프랑스 파리 항공 에어쇼 2025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2025

세계 최대 항공우주산업 전시회 '파리에어쇼 2025'
항공기 제조업체 & 방위 산업 & 우주 산업 & 부품 및 장비
비즈니스 및 일반 항공기, 연구 및 개발

개최 장소 : 프랑스 르부르제
[Parc des Expositions du Bourget]

개최 일자 : 2025년 6월 16일 (월) ~ 6월 22일 (일)

www.snmiles.com
MICE, 일반 여행,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비즈니스 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코스피, 지난달 3.92% 떨어져...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기록

美 대통령 선거 이후 증시 상승세 이달 산타렐리 기대감... 투심 자극 국내증시, 트럼프 리스크에 변동성 ↑ 韓 경기 내년 2분기에 저점도달 전망 골드만삭스, 韓 투자 '중립'으로 하향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하락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8.76포인트(1.95%) 내린 2455.91에, 코스닥지수는 16.20포인트(2.33%) 내린 678.19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지난달 코스피가 약 4% 하락한 것과 상반되게 뉴욕 3대 지수들은 5%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산타렐리', '연말렐리'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편이지만 국내 증시는 연말 이벤트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는 3.92% 하락했다. 반면, 뉴욕 주요 지수들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상승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1월 2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4910.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032.38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다. 두 지수는 11월에 각각 7.53%, 5.73%씩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1월 한 달 동안에만 6.20%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펼쳐졌던 미국 증시 내 상승 랠리가 12월에는 산타 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하

지만 국내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연말 랠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12월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리밸런싱 수급이 아니라 한국 경기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오른 경우는 2016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등 다섯 번이다. 이 중 네 번은 연중 오르다가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고, 2021년은 11월까지 연중 수익률이 -1.2%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11월까지 코스피의 연중 수익률은 -7.5% 수준으로 매우 낮다.

박 연구원은 "한국 경기가 내년 2분기 경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가 착륙하기까지 2025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부터 2019년과 2022년에서 2023년, 앞선 두 번의 하락 사이클에서 코스피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는 6%까지 하향 조정됐다는 부연이다. 지난 두 번의 경우처럼 6%까지 하향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컨센서스가 8% 언저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

드만삭스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상장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변수 등이 코스피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거시 경제가 달러 강세와 관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 둔화가 전망된다"고 짚었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주주 제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주식의 재평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도전적인 거시 경제 환경에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당국의 높은 인식으로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시장 환경은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단계... "年 영업익 2兆 기대"

metro 관심종목 대한항공

EU 집행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받아 지난 한달 동안 주가 10% 가량 올라 韓 유일 대형항공사... 시장 지배력 ↑



대한항공 기체 모습 /대한항공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으로 양사의 인수·합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항공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2만5950원을 기록한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난 한달 동안 10% 가까이 상

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40%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대한항공의 주가 오름세는 지지부진했던 시장 상황까지 이겨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

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간 가장 다진 결과다. EU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14개 '필수 신고국(경쟁 당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따냈다. 업계에서는 EU의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한국 유일의 대형 항공사(FSC·풀서비스캐리어)가 되며 시장지배력이 커질 전망이다.

합병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자본시장에서도 대한항공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항공 시장 재편 결과를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높이는 증권사들도 나왔다. 하나증권은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몇 년간의 영업환경은 FSC(대형항공사)

에 긍정적"이라며 "원거리 노선의 경쟁 강도가 완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유가·금리도 하향안정화함에 따라 대한항공은 연간 영업이익 2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추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아시아나 지분 64%를 인수할 예정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합 대한항공의 경우 노선 확대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 확대, 운영 기재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재 주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0.9배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대형 항공사 평균치인 1.3배 대비 저평가 국면"이라며 "인수 효과에 따른 연결 실적 증가와 프리미엄 노선 수요 증가에 따른 여객 운임 강세가 이어지며 밸류에이션 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학개미, '가상화폐' 강세에 투자 열풍

지난주 최대 순매수 종목 TOP 5 중 가상화폐 4개 차지... 2위에 테슬라

2024년의 마지막 달에 접어든 시점에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대세'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달 동안만 38%나 급등하며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끌어 올렸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한주(22~29일) 동안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티렉스 2X 롱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데일리 타겟 상장지수펀드(ETF)'로, 총 1억 1670만 달러(약 1629억원)를 사들였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빛을 내서 비

트코인 투자에 집중한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비트코인 38만 6700개(약 365억 2786만 달러·51조원)를 보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공동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에도 5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으며,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보유 비트코인 평가액이 54억 달러(약 7조 5897억원)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자본시장에서도 코인 관련 종목의 매수세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서학개미가 많이 매수한 주식 순위 3위부터 5위 역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일일 주가 변동률을 1.75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마이크로



/유토이미지

스트레티지 ▲이더리움의 일일 성과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등이 해당된다. 서학개미가 이들 세 종목에서 순매수한 총액은 2억 700만 달러(약 3853억 원)에 달했다.

연말 미국증시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도 선물 시장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

순매수 상위 5위에서 유일하게 가상화폐와 관련 없는 종목은 테슬라였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는 테슬라 주식 1억 1607만 달러(약 1621억원)를 순매수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스팸문자 사기 차단방안 정교화

스팸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키워드 선정

최근 불법업자가 발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 사기 관련 스팸 문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 스팸문자 차단 방안을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1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SKT·KT·LG+)는 스팸문자로 인한 금융투자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차단 방안을 정교화한다고 밝혔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지난달 기준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가 추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 발신번호를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이 일괄 차단되도록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 적

용 범위를 다음달 16일부터 투자 유인 스팸문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 문자 약 2만여 개를 분석해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문자의 발신번호는 6개월간 대량 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아울러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도 이뤄진다.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분석해 추려낸 핵심 키워드를 각 이동통신사 분석·차단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정교하게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스팸 문자에 따른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 결과 투자 유인 유형 스팸 문자 약 20%를 추가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허정윤 기자

넥슨 '메이플 확률조작' 일부 패소... "이용자에 5% 환불하라"

대법, 넥슨 상고 기각 '최종판결'
"향후 여러 게임사 확률조작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

게임사 핵심수익 모델 판결에
시장 생태계에 영향 미칠수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넥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게임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한 소송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 사례인데다 다른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아이템 관련 소송도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였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



넥슨 사옥 전경. /넥슨

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 측에 구매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측에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를 대리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써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뽑기'로 불리는 확률형아이템은 게임 내 일정한 확률에 따라 내용물이 취득 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어떤 상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아이템을 구매한다.

사건은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강화 확

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큐브를 사용하면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당시 큐브는 개당 1200원, 2200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설정됐던 걸 넥슨이 인기 옵션이 될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넥슨 측에 청구액의 5%인 57만여원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원고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게임

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넥슨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와 인기 그룹 '뉴진스'의 콜라보 아이템 등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위메이드도 아이템 1종에 대한 확률정보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판결이 게임시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中 기업과 맞손... K의료기기 첫 수출 성과

산업부-코트라

상위 메디컬 의료기기 수출전 개최
한국 중소기업 16곳 참여, 1대1 상담 진행

#통증치료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중국 수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코트라 주최 '상위 메디컬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에 참가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다. 코트라 정저우무역관이 바이어와의 상담부터 인증, 물류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 결과 올해 8월 처음으로 중국 수출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중국 허난성 안양 시에서 '상위 메디컬 의료기기 수출 전시·상담회'를 개최,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상위 메디컬 및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등 우리 의료기기의 중국 수출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허난성 상위 메디컬은 2002년 설립한 중국 의료기기 선도기업이다. 중국 전역의 병원, 보건소, 노인 요양원, 복지기관 등에 600여 종의 재활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상위 메디컬과 협력하면 중국 전역에 걸친 판매망을 통해 의료기기를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 11월 30일 중국 허난성 안양에서 열린 '상위 메디컬 의료기기 전시 상담회'에서 우리 의료기기 기업이 상위 메디컬 바이어에게 의료기기 시연을 하고있다. /코트라

이번 행사에는 우리 중소기업 16곳이 참여해 상위 메디컬 구매 책임자와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 홍보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또 사전 신청한 10개 기업은 상위 메디컬의 중국 전역에서 온 벤더 200명을 대상으로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현지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유력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중국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요구받는 의료기기 인증 요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험인증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소·소상공인 100곳 우수제품 집중할인

중기부 '12월 동행축제' 막 올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12월 동행축제'가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곳곳에서 펼쳐진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가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사의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1주차 주말인 오는 6~8일에는 서울 홍대건교로(레드로드 R1~2)에서 개막 특별행사가 열린다. 국내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2012년 상점가로 지정된 홍대 레드로드는 일 평균 방문객이 8000명에 이르는 곳이다.

중기부는 겨울을 맞아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와 청년상인, 강한소상공인 및 동행기업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중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이뤄진다.

대구 크리스마스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6~8일) ▲군산&거



을 나눔 동행축제(2~28일) ▲서울망원시장 크리스마스 마켓(2~15일) ▲인천 소상공인우수제품특판전(20~25일) 등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19~22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K-핸드메이드페어와 연계한 소담마켓이 선을 보인다. 11곳의 동네상권발전소에서 상권 특색에 맞는 콘셉트로 상권별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유관 협·단체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유통기업 등 36곳의 공공·민간에서도 미혼모 기부금·기부물품 전달, 한부모 가정 기부행사, 백년가계와 함께 나눔행사 등 자발적 온기나눔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한다.

동행축제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진다.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등 총 190여 개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쿠폰 발행, 타임 특가, 특별할인 등을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솔제지, 친환경 소재 '듀라클' 위비건 인증

프랑스 비건인증 이어 두번째

한솔제지의 천연 유래 친환경 소재 듀라클(Duracle)이 위비건(weVegan) 인증을 획득했다.

1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위비건 인증은 GSC글로벌표준인증원이 국내 식품 및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동물 유래 원재료 사용 및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 및 공장 등에 부여한다.

한솔제지의 듀라클은 제품 뿐만 아니라 제조 설비에 대해서도 위비건 인증을 받아 비건 뷰티에 적합한 천연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듀라클은 지난해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프랑스 비건 인증인 이브 비건(EVE VEGAN)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비건 인증을 획득해 국내외에서 명실공히 비건 소재로 인정받았다.

한편,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동물성 원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식물성 원

료만으로 만든 비건 뷰티 제품이 30대 이하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비건인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600억원에서 2022년에는 5,700억원으로 4배가량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듀라클이 비건 뷰티 트렌드에 부합하는 소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비건 뷰티와 같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인구감소지역 투자 벤처펀드 217억 조성

중기부 '인구활력펀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할 벤처펀드 217억원을 본격 조성한다. 중기부는 1일 '인구활력펀드' 출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모태펀드가 95억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5억원을 각각 출자해 2개 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217억원

규모 벤처펀드는 내년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벤처투자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활력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개의 벤처펀드 선정에 14개 운용사가 신청을 하여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초 결성 목표액인 200억원도 훌쩍 넘겼다. /김승호 기자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급증 대금지급 지연·부당반품 피해 심각

공정위, 유통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온라인쇼핑몰 '거래관행 개선' 69%
지급지연·감액 등 불이익 경험 많아
판촉비 전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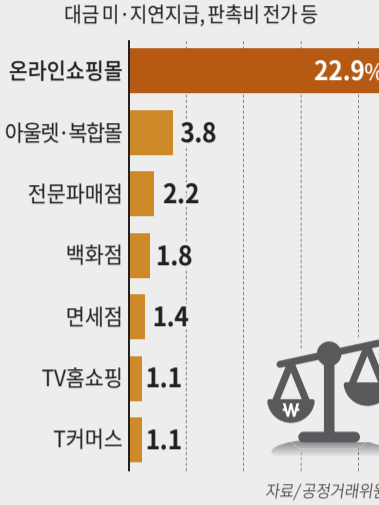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85.5%로 전년(90.7%)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91.0%, T-커머스(TV시청중 상품구매 양방향서비스) 91.0% 순으로 높았다.

유통업 불공정행위 경험률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떨어지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불이익제공(8.4%), 대금지급(특약매입, 8.3%), 판촉비용(7.6%), 반품·수령지체(6.5%), 대금지급(직매입, 5.2%), 배타적거래(4.1%) 등 순으로 많았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부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

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을 비롯, 아울렛·복합쇼핑몰(95.1% → 87.7%) 업체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올해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체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금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IAT, 양자컴퓨팅 플랫폼 구축 사업 시작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사업 착수 회의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실제 도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달 29일 오후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플랫폼 제작 및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세대 양자사업단이 보유한 양자컴퓨터 시설과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세대는 성균관대, 분자설계연구소와 공동으로 양자 관련 연구 시설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양자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의 수료를 발굴

해 양자 컴퓨팅을 통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추진계획을 밝히고,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 수요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78억원이 투입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선정

환경부, 불법 포획시 3000만원 벌금

환경부는 1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줄기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풀(초본)을 뜻하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풀이 아닌 흠아비꽃대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은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돌아난다. 6~7월에는 황록색 꽃이 피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식물의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 채취가 이루어져 자연 속에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죽절초. /뉴스1

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죽절초는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 지역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되면 멸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죽절초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화학사고 예방부터 규제 합리화까지”

환경부,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등 심층 논의
VR 기기 활용 사고 시 대피 체험

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지난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t)에서 선진국 수준인

1t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나뉜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2일에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이 열린다. 아울러 ▲제4회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중소기업 대상 화학안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사실확인(fact check) 등의 부대 행사도 선보인다.

둘째 날인 3일에는 ▲화학안전정책 포럼 종합토론회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전문가 토론회 ▲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의 날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연합회(워크숍) 등이 마련됐다.

행사장 밖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화학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엘지생활건강, 볼스윈, 이마트, 메디앙스 등의 기업에서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전시하며, 화학안전을 주제로 하는 짧은(숏폼) 영상 공모전 당선작을 감상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안전주간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방안을 통해 기업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시민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로운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kr

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의체 첫발

환경부, 안전사회 실현 목적

환경부는 오는 2일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간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을 들여다보며 기업의 실행 의지를 돕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번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행협의체가 화학제품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기대하며, 협의체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농촌관광시설, 3.6만 곳 안전·위생 점검

농식품부,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4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기이용, 난방 등에 대비하여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6000여 개소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농촌관광시설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제3회 소담회 정기전

The 3rd SODAM Art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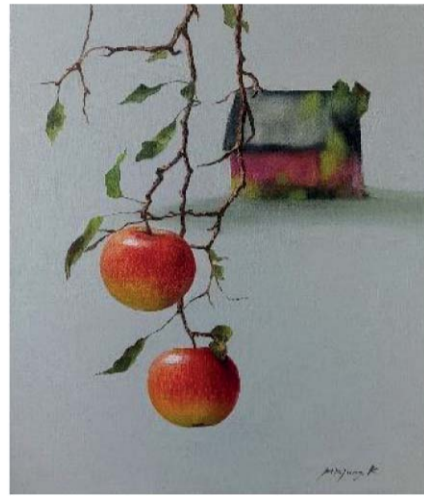
Gallery **오람**

Dec 1 ~ 8
2024

관람시간 11:00 ~ 19:00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매주 일, 월요일 정기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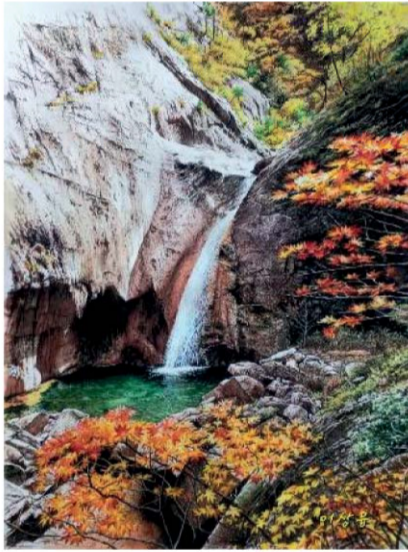
Formentation II
강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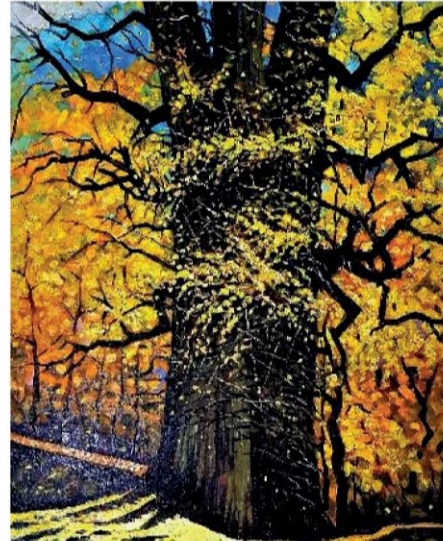
가을의 선물
김민정



Perfume 2024
김현정



천당폭포
이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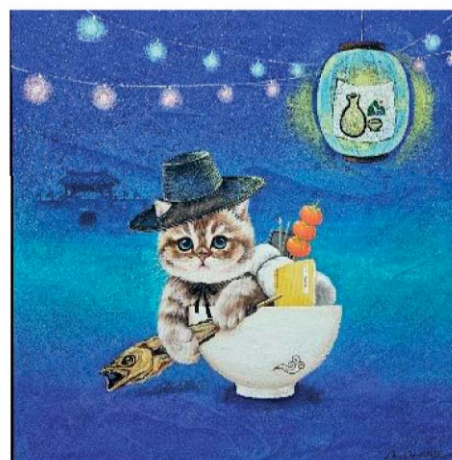
천년의 화석
김유식



나 꿈이 생겼어_롤리팝나무
김경아



sweet cloud vine
Berry-J



행복을꿈꾸는 냥이(선비냥이)
배인영



작약
박희정

SPC삼립, 황종현·김범수 양 날개로 ‘혁신·글로벌’ 박차

〈대외사업〉

〈내부관리〉

SPC그룹, 2025 정기 임원인사

파리크라상 부사장에 김성한 승진 변화와 혁신·현장중심 경영 강화 임병선·도세호 각자대표체제 운영 내부 의사결정 빠르고 효율적 진행



김범수 SPC삼립 공동 대표이사(부사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부사장)



임병선 SPC 대표이사(총괄사장)

SPC그룹이 ‘변화와 혁신·현장중심·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1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SPC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SPC삼립을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고, 김범수 전무를 공동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기존 황종현 사장은 인수합병(M&A)과 글로벌 사업 등 중장기 사업전략 및 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김범수 신임 대표는 사업 운영과 내부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 주력 회사 가운데 하나인 SPC삼립은 김범수 신임 대표이사 선임으로 푸드사업 영역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SPC마케팅전략실 담당 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SPC삼립 사내이사(전무)로 선임된 바 있다. 마케팅·푸드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 대표이사가 판

매전략과 시장대응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PC삼립의 사업전략 등을 맡는 황종현 사장은 지난 2020년 외부 영입 인재로, 30여년 간 동원그룹에서 다수의 M&A를 추진해온 경험을 인정받은 영업·마케팅 전문가다. 그는 취임 후 2020년 7월 파인캐주얼 브랜드 ‘에그슬릿’ 국내외 오픈, 휴게소 사업 확대 등 외연 확대에 주력해 왔다. 기존 휴게소 입찰 구역에 계열사 브랜드를 입점시켰고 계열사간 시너지 도모와 수익 창출 효과를 냈다.

이번 인사에서 파리크라상도 기존 김성한 대표이사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 추진 하도록 했다.

또, 현장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안

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각 생산 센터장들을 승진 발령했으며, 해외 법인에 임원들을 신규 선임해 글로벌 사업에 더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SPC그룹은 지난 10월 임병선 총괄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면서 도세호 대표이사와 2인 각자대표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사장은 신세계 백화점부문 부사장, 신세계가사 대표이사,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부사장 등을 거친 경영 전문가로 인사, 법무, 대외협력, 컴플라이언스, 홍보 등의 분야를 총괄한다. 기존 도세호 각자대표이사는 안전경영, 상생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각자대표체제로 운영해 내부의 의사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SPC그룹 의지가 엿보인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공백 메꾸기와 그룹 이미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험 많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그룹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의 지난해 연결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은 약 8조1000억원으로 2020년 약 6조5000억원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뤘다. 같은 기간 해외법인 매출 역시 4000억원에서 65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이후 미국·프랑스·영국·동남아 등으로 꾸준히 점포 수를 확대, 올해 글로벌 600호점을 돌파했다.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등에 추가로 진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건립 중인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을 올해 말 가동해 중동 할랄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 일자리 10만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 1만 2000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SPC그룹의 청사진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농심이 푸드QR 제도를 도입한다. /농심

농심 식품정보 쉽게 확인 ‘푸드QR’ 제도 도입

농심이 식품안전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실시간식품정보 확인서비스(이하 푸드QR) 제도를 도입한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제품에 인쇄된 QR을 휴대폰 등으로 스캔하면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취급방법, 고객센터 안내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농심은 총 17개 제품(용기면 12개, 스낵 5개)에 푸드QR을 도입한다. 이번 푸드QR에 동참하는 15개 식품회사(101개 제품)중 가장 많은 제품이다. 농심은 이번 달부터 푸드QR 적용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 내년 1월까지 17개 제품에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호텔 케이크·스키장 이용권까지… 편의점서 준비하세요”

편의점 업계, 연말특수 공략 GS25 크리스마스 DIY 세트 판매 이마트24 조선히otel 케이크·디저트 세븐일레븐 스키장 이용권 6종 판매

연말을 맞아 편의점 업계가 상품 카테고리 확장을 하며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춘 연말 특수 공략을 펼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업체들은 연말 고객을 겨냥해 케이크, 와인,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세트(DIY) 상품군을 내놓으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연말 소비 트렌드가 송년회 중심에서 휴파티와 개인 맞춤형 여가 활동으로 변화함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전략

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라이프스타일이 송년회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휴파티와 개별 여가 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 구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GS25는 크리스마스 DIY 세트를 선보인다. 90cm 높이의 트리과 LED 전구, 별·리본·볼·종 등 다양한 장식품으로 구성된 집에서 손쉽게 트리를 꾸밀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형상화한 꽃다발 상품도 함께 준비했다.

이 밖에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12월 한 달간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2024 한정판 크리스마스 썸’을 유통 업계 단독으로 제공한다.

호텔 브랜드의 케이크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마트24는 조선히otel 케이크·디저트 9종을 선보인다. 부쉬드노엘, 초콜릿퍼지 케이크, 슈틀렌 등의 제품이 준비됐다. 이마트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이 외에도 블로네제라자나, 부채살 찹스테이크, 감바스알아히요, 새우듬뿍파티, 즉석쫄면떡볶이 등 휴파티에 어울리는 가성비 밀키트 10종을 제공한다.

스키장 이용권까지 편의점에 등장했다.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스키장 이용권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비발디파크의 리프트권 2종을 포함해 총 6종이다. 스카보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소노호텔 앤리조트 공식 렌탈샵 50% 할인권도 함께 제공해 실속을 더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진행 중인 ‘하이 주얼리 페어’ 전시 상품을 바라보는 모델. /롯데쇼핑-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하이 주얼리페어 개최

롯데백화점이 연말 특별 행사로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하이 주얼리 페어’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하이 주얼리 페어’는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2층 본매장에서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까르띠에, 불가리, 반클리프아펠, 그라프, 다미아니 등 14개의 해외 유명 하이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했다.

참여 브랜드는 각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군부터 특별 제작된 한정판 주얼리 상품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총 130여 주얼리 제품이 준비됐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풀무원, GEA와 파스타·누들 개발 맞손

음성 생면공장 개발협력 등 논의

풀무원이 세계적인 파스타 생산설비 제조사 GEA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풀무원은 지난달 29일 충북 오송 풀무원기술원에서 GEA와 파스타·아시아 누들 개발과 신기술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

장, GEA 미켈레 달데리 마케팅 이사, 니콜리노 스키타라 아시아 기술영업 총괄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풀무원 음성 생면공장의 ASE(Advanced Single Extruder) 설비 활성화를 통한 제품 개발과 신기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풀무원과 GEA는 ▲다양한 파스타와 아시아 누들 제품에 대한 상호 경험과 지식 공유 ▲새로운 압출&압연 제면 기술과 식품용 신기술

및 설비 정보 공유 ▲신규 설비 도입에 대한 양사간의 우선 검토 등을 협력한다. 양사는 향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원료·기술·시설·인적자원 등의 교류에 적극 협조해 글로벌 파트너로서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풀무원은 이번 MOU를 통해 풀무원, 바릴라, GEA 삼자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 앞서 파스타를 비롯한 선진 냉장면 제품 제조 기술 확보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지난달 29일 충북 오송 풀무원기술원에서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왼쪽)과 GEA 미켈레 달데리(Michele Darder) 마케팅 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제약·바이오업계,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경쟁 본격화

휴젤 美 시장 '레티보' 출시 준비
대웅제약 '나보타' 해외 매출 상승
메디톡스 '뉴릭스' 생산 인프라 확장
동국제약 '비에녹스주' 국내 판매

'K독신'이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보툴리눔 독신 제품을 내놓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경쟁이 예고된다.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올해 하반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743억원, 954억원, 3분기에는 1051억원의 매출을 올려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써내려가고 있다. 영업이익도 1분기 240억원, 2분기 424억원, 3분기 53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휴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748억원, 영업이익은 1198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보툴리눔 독신 부문이다.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휴젤의 보툴리눔 독신 제품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매출액은 1488억원으로 전체 누적 매출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휴젤은 앞서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레티보' 50유닛과 100유닛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휴젤이 유일하게 글로벌 3대 독신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한 상황이다.

휴젤은 올해 4분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휴젤은 지



레티보

/휴젤



나보타

/대웅제약



뉴릭스

/메디톡스



비에녹스주

/동국제약

난 7월 말 첫 미국 수출 물량 선적을 완료했고, 미국 파트너사 베네브와 레티보 공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휴젤은 올해 안에 미국 현지에서 레티보를 선보이고 3년 내 점유율 약 10%를 확보할 계획이다.

휴젤은 중동·북아프리카(NEMA) 지역도 신중 수출 국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휴젤과 두바이 소재 미용의료 제품 유통사 메디카그룹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중동은 경제 성장률, 인구 증가율, 미용과 의료 목적 소비 변화 등으로 인해 보툴리눔 독신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휴젤은 보툴렉스의 제품력과 시장 가치를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K독신' 신호탄을 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도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나보타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378억원이다.

특히 나보타가 해외에서 기록한 매출은 115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3% 수준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미국 미용 시장에서 나보타가 매출 2위에 오르는 등 대표 'K독신'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나보타가 기록한 매출은 프랑스 제약사 입센의 보툴리눔 독신 '디스포트' 매출을 넘어섰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로 집계됐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국내 최초 보툴리눔 독신인 '메디톡스'를 발매해 온 메디톡스는 차세대 제품과 대량 생산 시설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했다.

메디톡스는 최근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뉴릭스' 제조소로 오송 3공장에 신설된 E동을 추가했다. 메디톡스는 오송 3공장의 수출 국가별 제조소를 해당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오송 3공장은 유

럽 의약품청(EMA)의 우수약품 품질 관리 기준(GMP),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등을 승인받아 세계 최고 수준과 규모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기업 테콤그룹과 보툴리눔 독신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두바이에 보툴리눔 독신 완제품 생산시설을 세우게 되면, 중동 지역 현지에 보툴리눔 독신 생산 기지를 보유한 첫 국내 기업이 된다.

메디톡스는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매출액 1734억원, 영업이익 194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30% 늘었다.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등장한 동국제약도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10월 한국비엔씨와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동국제약은 국내 의료 미용 시장에서 비에녹스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자사의 경쟁력까지 높일겠다는 전략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9월에는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dkma)도 출범시키는 등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약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기 전 상황을 잘 떠올려보면, 국내 의료 시장은 의료 관광을 형성할 정도로 이미 세계적 수준과 인기를 보여줬다"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수술적 시술과 K뷰티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그 인기를 이어갈 소비자들의 공략하는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의료 영역이다 보니 제품 경쟁력에 기반한 전문가 신뢰 확보가 지속적인 성장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엔티파마 "넬로넵다즈, 뇌졸중 환자 장애 개선"

ICSU 참가... 2상·3상 결과 공유
"신속한 투여시 유의적 약효 보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진수 교수가 지난 2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넬로넵다즈 임상 2상과 3상 통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넬로넵다즈 임상 2상과 3상은 혈전 제거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 208명과

496명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됐다.

이진수 교수는 "신속한 혈전 제거 시술 시행과 넬로넵다즈 투약으로 뇌졸중 환자의 장애가 더욱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후 분석 연구를 통해 넬로넵다즈의 약효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투약 조건과 환자군을 확정했고 이를 정밀하게 반영해 넬로넵다즈의 약효를 입증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 3상 프로토콜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넬로넵다즈 다국적 임상 3상(RENEW)은 국내외 20여개 대학병원에서 진

행된다. 지엔티파마는 다음 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엔티파마 과학부 대표이사는 "동물 실험과 유사하게 재개통되는 뇌졸중 환자에서 넬로넵다즈의 약효가 밝혀지고 있어 혈전 제거 시술과 넬로넵다즈 병용 치료가 뇌졸중의 표준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다국적 임상 3상 성공을 위해서는 넬로넵다즈의 약효와 상관관계가 있는 환자를 선정하고, 혈전 제거 시술 시행과 넬로넵다즈 투약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국제약 '오라페인큐젤' 출시

동국제약이 구내염 치료제 전문 브랜드 '오라군'에서 신제품 '오라페인큐젤(사진)'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오라페인큐젤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구내염 치료제로, 주요 성분은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과 염화세틸피리디늄수화물이다.

이번 신제품은 겔 제형으로 구성돼 소량을 덜어 입 안 통증 부위에 바르면 된다.

/이청하 기자

LG생전, 다이소 '스팟 카밍 젤' 인기몰이

누적 판매량 10만개 돌파

LG생활건강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전용 제품으로 출시한 'CNP 바이 오디-티디 스팟 카밍 젤'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국내 뷰티 업계에서 인기 제품으로 급부상했다고 1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CNP 바이 오디-티디 스팟 카밍 젤'은 지난 9월부터 다이소에서 판매되고 있고,

11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10만개를 돌파했다.

이 제품은 각질, 피지, 건조함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레티날 성분과 라하 성분을 비롯해 피부 진정 효과를 갖춘 5가지 허브와 애플 사이타비니거를 활용한 '허브·비니거 텅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수분감 있는 제형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W컨셉, 박막레 뷰티 브랜드 '레레' 공개

금쌀 에너지 결케어 에센스 등 3종

패션 플랫폼 W컨셉이 구독자 116만 명의 인기 유튜브 박막레 할머니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화장품 브랜드 '레레'를 온라인에서 단독으로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W컨셉에 따르면 '레레'는 할머니의 지혜를 담아 젊은 세대를 위한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창작자 박막레와 세계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업체

코스맥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피부 관리 브랜드다.

대표 제품은 ▲금쌀 에너지 결케어 에센스(80ml) ▲금쌀 에너지 크림(50ml) ▲도토리젤리 쿨다운 패치(34매)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박막레 할머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한 피부 관리 비법인 쌀뜨물과 도토리 가루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HK이노엔 컨디션 앰버서더에 해원

HK이노엔이 숙취해소제 '컨디션' 앰버서더로 아이돌 엔믹스의 '해원'을 발탁했다고 1일 밝혔다.

HK이노엔은 자사 대표 브랜드인 컨디션과 인기 아이돌 해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HK이노엔은 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술자리를 위한 '필수 준비물'인 컨디션의 이미지를 바른 이미지와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해원이 잘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온라인으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 ✓ 글로벌 TOP100 6위
- ✓ 서비스품질지수 최다 1위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교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학생 수(16,802명)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최다 1위
사이버대학교 10년 연속 1위(총 18회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교 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년 12월 01일(일) ~ 2025년 1월 16일(목)

입학
지원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교육공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AI산업디자인학과 스푸마토학부 AI융합자유전공학부

입학문의 | 02.2290.0082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에코프로, 포항지역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에코프로는 지난달 27일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에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 60여명은 770포기의 김치를 담그고 포항지역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했다. /에코프로



기정원,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최우수상 수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분야 공공기관·국가도시지역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민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장(오른쪽)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진공, '사랑의 나눔 PC 기부행사' 참여

소진공은 13개 디지털 ESG 자원순환협약기관과 '사랑의 나눔PC 기부행사'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호 기획경영본부장(오른쪽)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삼육대, 동계봉사대 발대식... 필리핀 등 파견

삼육대학교는 지난달 27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2024 동계 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봉사대는 이번 겨울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튀니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6개국과 국내 3개 지역으로 파견돼 각 파견지에서 교육봉사, 의료봉사, 교류봉사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삼육대



경동나비엔, 진주시에 '나비엔 하우스' 오픈

경동나비엔이 경남 진주시에 오프라인 체험 매장 '나비엔 하우스'를 열었다. 이는 경기 남양주북부점과 의정부서부점, 그리고 제주점에 이은 4번째 매장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와 나비엔 하우스 진주점 김경영 대표(왼쪽에서 4번째)가 오픈 기념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경희학원,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 '디 엘더스' 영예

故 미원 조영식 박사유지 계승 반기문 디 엘더스 부의장 등 참석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디 엘더스(The Elders)'가 '제1회 미원평화상'을 수상했다. 미원평화상은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의 제창을 선도한 경희대학교 설립자 고(故) 미원 조영식 박사를 기리며 경희학원이 올해 제정한 상이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자는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해 세계적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립 비영리 단체인 '디 엘더스'다. 시상식에는 디 엘더스를 대표해 반기문 공동 부의장이 참석해 수상했다.

디 엘더스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29일 오후 3시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The Elders(디 엘더스)'가 '제1회 미원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그리사 마셀 여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공동 부의장이다. 전직 국가나 정부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립 비영리 단체인 '디 엘더스'다. 시상식에는 디 엘더스를 대표해 반기문 공동 부의장이 참석해 수상했다.

디 엘더스는 2007년 설립 이후 주요 분쟁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갈등 완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

해왔다. 설립 직후에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를 방문해 평화를 호소했고, 이후에는 중동, 북한, 미얀마, 이란,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인권 증진, 평화 촉진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반기문 부의장은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미원평화상'이 평화를 향한 모두의

노력이 세상에 펼쳐지는 데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수상 기관인 디 엘더스는 세계적 조각가 박은선이 제작한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지원금'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2억6700만원)를 받는다. 부상은 재미 동창회가 결성한 미원평화상 후원재단이 지원했다.

이리나 보코바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디 엘더스는 지역 분쟁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단체"라며 "포괄적이고 보편적 평화의 대의에 대해 지속적이고 비범한 헌신을 보였다"라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미원평화상 경과보고 ▲수상자 소개(영상으로 만나는 디 엘더스) ▲기념사(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시상 ▲수락사(반기문 디 엘더스 공동 부의장) ▲기념대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LG U+, '부스터스' 시즌3 성료

콘텐츠 누적 조회수 2000만회 달성

LG유플러스는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부스터스' 시즌3가 콘텐츠 누적 조회수 2000만 회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해 온 부스터스는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잠재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선발해 LG유플러스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대신, 잠재력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LG유플러스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중요한 고객층으로 떠오르는 MZ세대와의 접점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접근했다.

부스터스는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며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고,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후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MZ세대를 타겟으로 LG유플러스의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한 후기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다.

부스터스 시즌3는 활동 기간 동안 총 18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적 조회수 2000만 회를 달성했다.

크리에이터들의 팔로워 수는 활동 전과 비교해 평균 112% 증가했으며, 가장 많은 팔로워 성장을 보인 크리에이터의 팔로워 증가율은 870% 수준이었다. 시즌1 대비 시즌3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콘텐츠 수는 97%, 조회 수는 18%, 크리에이터 평균 팔로워 수는 65% 늘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장준수 GS리테일 1부부장(왼쪽 세번째부터).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자립준비청년 대표, 이용구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장, 함현석 기아대책 ESG나눔 1본부장, 김정한 강서구청 복지가족국장 등 외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모습 /GS리테일

GS리테일, '해피스토어' 1호점 오픈

자립준비청년 근로기회 제공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가 서울 강서구에 자립준비청년이 운영하는 편의점 '해피스토어 1호점(GS25 화곡타운점)'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해피스토어는 보육시설을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년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이다.

GS리테일에 따르면, 해피스토어는 지난 5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점포 운영 관리는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가 담당한다.

해당 점포에는 강서센터 소속 자립준비청년 및 자활청년 8명이 근무한다. 사전에 경영주 교육을 이수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매출 분석 등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GS25는 향후 해피스토어를 확대해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근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건국대,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소

실내 환경관리 관련 사업 추진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중 최초이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은 두 번째로 환경부 지정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난달 27일 개소했다.

1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는 최근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실내 환경관리 장비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분석 등 풍부한 연구 경험을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소 대학으로 지정됐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와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건국대는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실내 환경관리 관련 다양한 협력 및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개소식 이후에는 '깨끗한 실내 환경을 바라는 국민 대토론회'도 이어졌다.

원종필 건국대 총장은 축사에서 "ESG 경영을 중시하는 건국대에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사

◆**병무청** ◇ 개방형직위 임용 △ 강원지 방병무청장 방경중

◆**에너지경제신문** △ 기후에너지부 부장 윤병호

부음

▲ 송희숙씨 별세, 윤소영씨 모친상, 이두원(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남지사 수석 전문역)씨 장모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3일. 02-1588-1511

▲ 김문희씨 별세, 김태완(법무법인 린

변호사)씨 부친상, 김나미(KBS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선부 부장)씨 시부상 =

11월 30일 오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010-5225-5285

▲ 박순례씨 별세, 이일교(주식회사 일흥 회계)·이연교(주식회사 일흥 대표이사)·이삼교(LS증권 컴플라이언스팀장)·이화숙·이영숙 씨 모친상, 이순화·이명수 씨 시모상, 방양석·전찬영 씨 빙모상 = 1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3일. 02-2650-5121

▲ 정순중씨 별세, 서창석(KT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3일. 02-2258-594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를 배우다. 시대와 통하다.

• 영도학부

• KIO학부

• 연세학부

• 한겨레학부

• 스페인어학부

•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 경영학부

•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 다문화·심리상담학부

• K뷰티학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 2024. 12. 1(일)~2025. 1. 16(목) 2차 2025. 2. 3(월)~2025. 2. 17(월)



문의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사기회생·사기파산 인정, '적극성'이 갈라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과 파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서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거나 실제 채무액을 부풀려 변제율을 낮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를 인정하고 있을까?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A는 최초에는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의 이익제기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는 회생절차 신청 전 W, X, Y의 이름으로 주식,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상태. 또 마치 Z에 대해 2억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냈다. 이후 법원에 Z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금액에 비해 A의 재산은 현금 900만원 정도가 전부라는 취지로 작성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당연히 A의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사기회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231판결).

다른 사례를 보자. B는 2003년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속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고 2005년 11월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했다. 이후 사기파산이 문제되자 B는 아버지가 사망한 2003년경에는 협의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파산신청을 한지 3년이 지난 2008년경에야 가족들간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단순한 상속재산누락행위를 사기파산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

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파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판결).

결국 사기회생, 사기파산죄 해당 여부를 가르는 키워드는 '적극성'이다. 단순히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법원은 이를 '소극적 행위'라고 표현한다). 처벌대상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차명으로 돌려놓거나,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채권자들을 여럿 만들고, ▲소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등 해당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언제나 회생, 파산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절차 진행에 대한 부동의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로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재산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태블릿 교과서', 사라진 사각거림



김서현 (사업부)

10여 년 전 대학생들이 두꺼운 전공책에 필기를 했던 것과 달리 최근 대학생들은 태블릿에 저장된 전공책 이북(e-book)을 보며 전용펜슬로 필기를 한다. 물어보면 간간히 공책에 필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강의실에 몇 명 될까 말까라고 한다. 내년부터는 더 나아가 초·중·고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DT) 시대가 온다. 수업 풍경을 상상하면 더 더욱 어색함이 느껴진다. 고사리 손으로 태블릿에 저장된 교과서를 넘긴다니 상상도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한 청소년보호자들이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을 사주려 하다 보니 어린애들이 울고 떼

쓴다는 이야길 들은 게 얼마 전인데 아예 태블릿으로 수업을 한다니. 기성세대여서일까, 나는 여전히 종이책을 읽으며 연필로 줄을 긋는다. 사각사각 그어지는 소리도 좋고 책이라고 하는 매체가 주는 냄새와 감촉, 어떤 생생함이 좋다. 이북을 읽을 때면 내가 책을 읽는 건지, 필 쓰는 건지 스스로 어색함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더욱 요즘 광경이 낯선가 보다.

그러나 낯설다고 말하면서도 나 또한 정말 못말리는 유튜브 중독자다. 기껏 책은 종이로 읽으면서 몇 장 넘기기 무섭게 다시 스마트폰을 쥐고 구독 중인 채널에서 새 영상은 올라왔는지 들여다 본다. 쇼츠라도 보면 그날은 끝났다. 하루종일 도대체 의미를 모를 쇼츠를 무한 스크롤링 한다. 신기한 쇼츠를 보며 '우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면 난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멈추지

는 못 한다. 스마트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괜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얼른 손에 잡으려고 한다. 다음 버스가 언제 오든 사실 중요한 일도 아닌데 굳이 앱(APP)을 켜서 버스가 언제 오나 살피고 딱히 먹고프지도 않으면서 배달 앱을 켜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짹짹 배부름만 느낀다.

나는 대학을 다니던 중 아이폰3GS가 한국에 들어오며 스마트폰의 시대를 맞았다. 처음에는 신기한 장난감으로 느껴졌지만, 날로 늘어나는 앱 만큼 나는 스마트폰에 목을 매달게 됐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괜찮을까? 아직 두뇌 성장이 한창인 아이들은 계속해서 태블릿 PC를 봐도 괜찮을까? 많은 우려 속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문득 아날로그(Analog) 시대가 그리워진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 36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48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0년생** 돈 버는 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72년생** 멀리 있는 가족보다 친구의 위로가 감사. **8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 37년생** 나이 따지지 말고 재혼에 도전해보자. **49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한 날. **61년생** 사랑 믿음 소망을 갖고 살자. **73년생** 멋진 내지 말고 가방 들고 도서관이라도 가서 공부. **85년생** 병 주고 약 주는 친구가 밉상.
- 38년생**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아프다. **50년생** 재물로 성과를 내서 또한 명예가 높아진다. **62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림자. **74년생** 어젯밤 꿈도 좋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86년생** 어제의 동자가 오늘은 적이 되니.
- 39년생** 외출해서 유혹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51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63년생** 남의 흉을 감추려면 나에게 유리. **75년생** 진취적 행동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87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 40년생** 현재 생각에 들떠있는 거품은 곧 사라지니 현실에 직면해야. **52년생** 다소 무리일지라도 도전을 해보자. **64년생**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76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88년생** 다투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을.
- 41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훨씬 수월. **53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65년생** 항상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7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다. **89년생** 도움을 줘도 줄수록 당연시하니 마음을 비워보자.
- 42년생** 고단한 삶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54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될 터. **66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78년생** 주식에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터득하면서 해보도록. **90년생**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다.
- 43년생** 동료와 협업이 좋은 성과를 낸다. **55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67년생** 붉은색 숫자가 행운을 준다. **79년생** 지금 시작하는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91년생**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
- 44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56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 **68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익. **80년생** 아프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놔야 안심이다. **9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
- 45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금물. **5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1년생** 오랜만에 여유의 시간이 생겨서 영화 보기 좋은 날. **93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
- 46년생**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8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휘둘리지 마라. **70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82년생**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실수도 있게 마련. **9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주변 조언을 구하라.
- 4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59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생** 갈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83년생** 사고의 폭을 넓혀야 바로 볼 수 있다. **95년생** 이성간에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기 마련.

김상회의四季 자기 뜻대로 사는 딸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딸이 네일샵을 열었다. 딸의 미래가 장사라고 해본 적도 없으니 곧 망할지 모른다면, 망하면 돈과 시간만 날릴 테니 미래가 막막하다고 걱정이다. 부모의 직업은 두 사람 모두 대학교수다. 부모 생각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번듯한 직장인으로 살던지 공부를 더 해서 전문직으로 살았으면 하는 거였다. 딸의 사주를 보니 재성을 보호하는 정관이 있다. 정관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겁재를 극하고 재성을 보호하기도 한다. 재성이 약한데 일간이 강한 사주는 신강제약이다. 여기서 정관이 비겁을 극하면 비겁이 재성을 흔들지 못한다. 빛나는 것은 월月的의 신금申金에 투간된 임수壬水의 조합으로 도세주옥淘洗珠玉의 구조이다. 재물은 묘묘와 신申 태지胎地의 조합이 있어 술책도 있으면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재능을 발휘한다.

딸은 사업이 잘되고 있을 것이다. 하여 지금 따님은 돈이 들어올 운세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네일샵 열고 2년 됐는데 벤츠 자동차를 샀단다.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뜻이고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다. 교수로 살아온 부모는 자기들이 살아온 길에서 모든 걸 재단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냥 직장이다. 그런데 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거기다 수입도 또래 직장인들 연봉의 몇 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꼭 취업을 해야 하는 걸까. 요즘 젊은 세대는 상식을 넘어서 다르게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길을 일구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딸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목표의식이 강하고 성실하며 사업가로 적합하다. 조만간 네일샵에 이어 부동산으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8	9	3	1
4		3	9	
			2	7
	7		2 6	
				8
2		8 5		1
6		7		
	5	8		6
9	2	4	1	

3	4	9		7
		5	7	
2 6		3		
9				8
	5 9		2 6	
7				9
		1		5 4
	3	8		
3		6	7	2

8	2	1	9	7	9	2	8	6
9	6	7	8	8	2	9	1	2
9	8	2	6	1	2	8	9	9
6	1	2	7	9	8	9	8	2
7	2	9	1	2	8	6	9	8
8	8	9	9	2	6	7	2	1
2	7	8	2	9	9	1	6	8
2	7	8	8	8	1	2	9	7
1	9	8	2	6	7	8	2	9



SPC삼립
황종현·김범수
'혁신·글로벌' 박차
나



Life

제약·바이오업계
'보툴리눔 독신'
경쟁 본격화
L2



온라인 고등교육 패러다임 선도 세계혁신대학 '랭킹 6위' 기염

2025 사이버대 가이드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2002년 개교 이래 20여 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온라인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선도해 오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총 1만6802명의 재학생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1일부터는 약 3900명의 2025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세계혁신대학 랭킹 6위...서비스 품질지수 사이버대 '1위'

한양사이버대는 질적 성장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 혁신과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습 환경 개선으로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온라인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6월 발표된 '세계혁신대학 랭킹 2024'에서 사이버대학 최초로 문화/가치(culture/values) 부문 Top100에서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양사이버대의 산업 및 학생 중심 문화,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한국 온라인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2024년 한국표준협회 서비스 품질지수(KS-SQI) 사이버대학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총 18회에 달하는 수상 기록으로, 한양사이버대의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는 성과다.

◆다양한 학부·학과 개설...실용·전문적 교육 제공

한양사이버대는 다양한 학부와 학과를 통해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건축도시건설공학부(건축도시공학)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국방



한양사이버대 전경.

신입·편입생 모집... 총 3896명 내달 16일까지 접수, 22일 합격발표 학부·학과 다양해 선택의 폭 넓어 산업체위탁전형 등 8개 특별전형

융합기술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공학 분야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경영학부에서는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생산물류유통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언어문화학부(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사회과학부(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광고미디어학과, 교육공학과, 법·공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도 개설돼 있다.

심리상담학부(군경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건축공간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AI산업디자인학과) ▲스프링마토 학부(AI융합자유전공학부) 등도 운영 중이다.

◆2025년 1월 16일까지 신입·편입생 모집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한양사이버대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2025년 1월 22일에 이뤄진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전형 기준으로 신입학 2000명, 2학년 편입학 304명, 3학년 편입학 1592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이다. 2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도 35학점 이상 취득 시 2학년 편입학이 가능하다. 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지원 가능하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70학점 이상 취득 시 3학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경쟁률 ↓ 장학금 ↑' 8개 특별전형 운영

한양사이버대는 총 8개의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장학금 혜택도 더 높은 편이다.

산업체위탁전형은 한양사이버대와 협약을 맺은 기업의 임직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스타벅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이 전형 대상이다. 군위탁전형은 부사관이나 장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국방부의 취학 추천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교육기회균등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전형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지원자가 대상이며, 학사편입학 전형은 이미 4년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다양한 장학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 전업주부, 취업준비생을 위한 장학금부터 고교 졸업생 진학장려 장학금, 여학생적 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양재일대 40만㎡ 부지 세계 AI선도 혁신거점 조성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통과 기업성장 저해 6개규제 특례 적용

서울 양재 일대 약 40만㎡ 부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초의 '인공지능(AI) 특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양재 지역을 글로벌 AI 선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양재 AI 특구'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6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AI 전문 인재 양성,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 혁신 지원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한 15개 특화 사업도 5년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특구 내에서는 특허 출

원 시 우선적으로 심사받아 기술 이전 및 산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며 "특화 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 인력의 사증 발급 완화, 체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서초구, KAIST AI 대학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재 양성, AI 스타트업 펀드 마련, 융자 지원, 공동 연구, 특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조성 등의 특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AI 클러스터 및 첨단 산업 기술 생태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AI 인재양성 및 유치 ▲국내외 산·학·연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AI 특구 지정은 양재 일대를 중심으로 자본과 글로벌 인재, 기업이 모여드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 '장항습지' 2024 생태관광지역 지정

환경부 선정... 환경적 보전가치 높아

고양시는 장항습지가 환경부가 선정한 2024년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전문 상담, 홍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생태관광지역 제도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5곳이 추가돼

총 40곳이 지정됐다.

장항습지는 기수역(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탐사르 습지로 국제적인 생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재두루미를 포함해 매년 3만여 마리의 물새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특히 버드나무와 갈대밭의 독특한 공생관계를 관찰할 수 있어 생태계 연구와 관광의 중요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탐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은 군 막사를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2월 2일 (월)
음력 : 11월 2일

수도권 날씨
7 ~ 1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백령도 8/8

연천 5/11

동두천 5/11

가평 2/11

파주 4/11

서울 7/13

양평 3/12

인천 9/12

수원 7/13

용인 7/13

평택 5/14

해돋이 / 07:29

해질 / 1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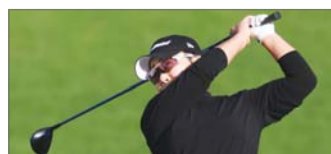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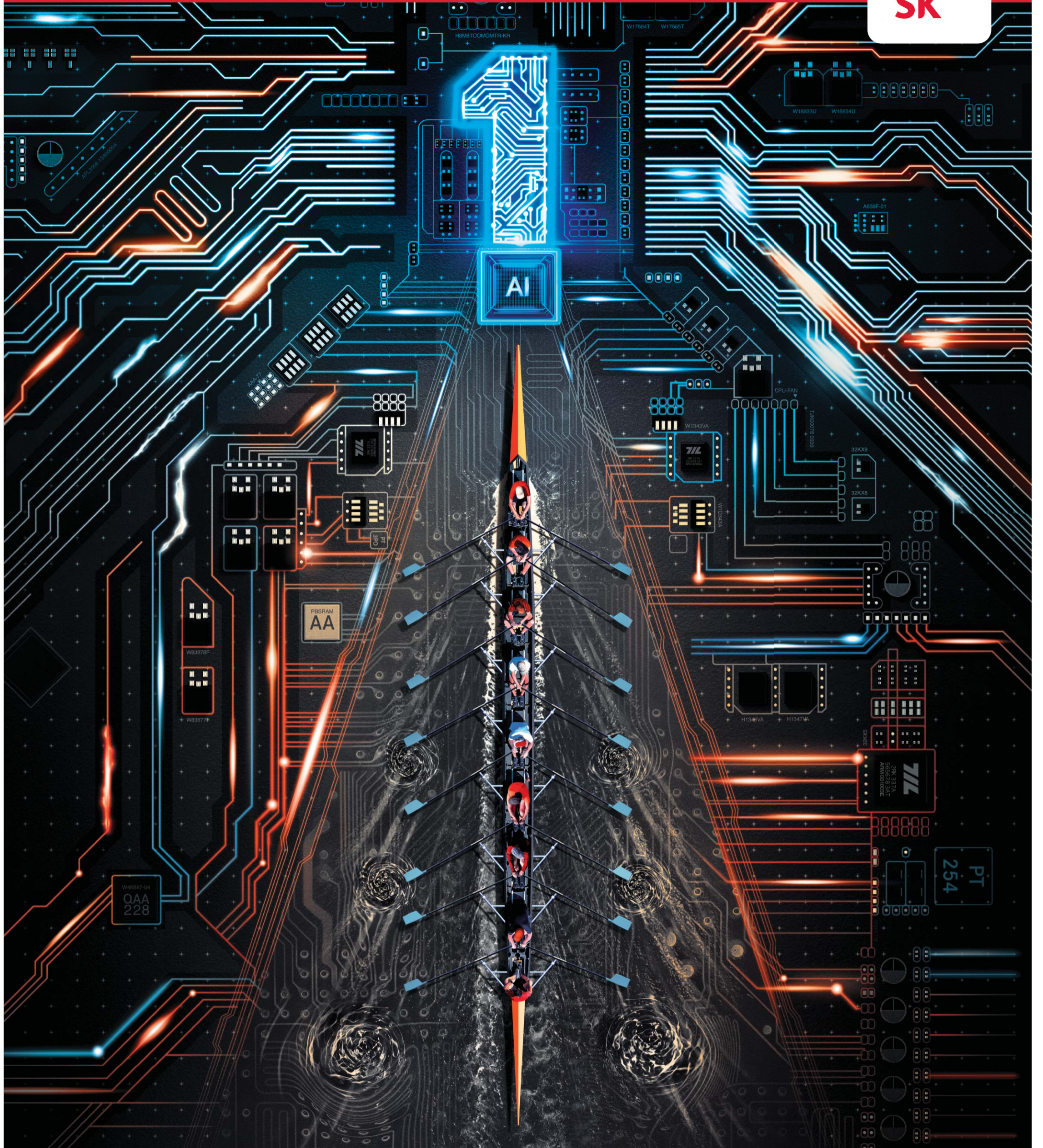
▲ '골대 불운' 이강인 73분 소화...PS G, 13경기 무패
▲ KIA 양현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13대 회장 선출 /사진 뉴시스

▲ 신우빈·김다빈, 실업마스터즈 테니스 남녀 단식 우승
▲ 여자핸드볼 대표팀, 아시아선수권 출전 위해 인도로 출국



▲ 신지애, 호주여자골프 ISPS 호주오픈 우승...개인 통산 65승째 /사진 뉴시스
▲ 김명훈 농심배 3연승...신진서의 '원맨쇼'는 피했다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